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WAY PAST WINTER

가제 : 겨울이 끝나는 길

저자 : Kiran Millwood Hargrave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중국 판권 계약 체결

* 워터스톤 아동 도서상, 영국 올해의 아동 도서상 수상작 『The Girl of Ink & Stars』 작가의 신작

푸르른 봄이 사라지고 차가운 겨울만 5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 사라진 아빠 대신 세 명의 누이들을 돌보며 가장 노릇을 하던 오스카가 사라진다. 바로 전날 인적이 드문 마을에 어둠이 내린 뒤 찾아온 알 수 없는 무리가 오빠를 데려간 것이 확실하다고 여긴 밀라는 꼬마 여동생 피파, 언니 사나와 함께 오스카를 찾아 나선다. 어쩌면 사라진 봄도, 아빠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꿈꿨던 눈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세 자매의 모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데뷔작 『The Girl of Ink & Stars』로 평단과 독자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가는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생생한 묘사와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로 가족을 찾아 떠난 밀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왜 겨울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이 처음으로 길게 이어졌을 때만 해도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마법사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마을과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지만, 이런 갈등과 싸움은 차가운 공기를 바꿔놓지 못했다. 따뜻한 햇살과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안겨주는 행복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꿈은 끝을 알 수 없는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어둡해진 숲에는 어슬렁대는 늑대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 둘 조금이나마 덜 추운 남쪽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밀라의 식구들은 숲 바로 옆 작은 오두막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겨우 일곱 살 된 피파는 매일 끼니라곤 양배추 죽이 전부인 생활이 지겨워 밥 먹을 때마다 징징대고 제일 큰 언니 사나는 그런 막내를 타박하기 일쑤다. 그나마 얼마 전부터 몇 안 남은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칼을 갈아다 주는 잘생긴 청년과 사나 사이에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통명스럽던 사나의 말투나 성격도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사나의 남동생이자 밀라의 오빠인 오스카는 정반대였다. 아빠가 사라지고, 눈 덮인 산에 매일 나가서 전날 설치한 덫을 확인하고 식구들을 추위에서 지켜줄 장작을

패는 일도 모두 도맡게 된 오스카는 웃음은커녕 미소도 잃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밀라는 말수가 확 줄어들어 버린 오빠 눈치를 보면서 투정 부리는 막내를 챙기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래도 함께 있기에 견딜 수 있었던 네 형제의 혹독한 겨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낯선 무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거의 일주일 내내 사나를 만나러 오는 청년이 또 다녀간 직후에 누군가 밀라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그 칼 같이 청년이 잊은 용건이 있나, 싶어서 반감게 달려 나간 밀라는 한 명이 아닌, 수십 명이 현관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기겁한다. 이미 어둡해진 뒤라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죽 늘어선 당나귀에 올라탄 이들은 전부 남자, 그것도 열다섯 살인 오스카 오빠의 또래 정도로 보이는 소년들이었다. 몇몇은 손에 커다란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넓은 천에는 공이 나무 밑에 서 있는 모습이 무슨 상징처럼 그려져 있었다. 대체 어디서 나타난 무리인지 밀라가 너무 놀라 두리번대는 동안, 이들 사이에 있던 유일한 어른이 밀라를 향해 다가온다. 어딘지 호감이 가지 않는 흉악한 얼굴의 남자는 밀라에게 집안의 가장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마침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으로 나온 오스카가 그와 대면한다. 남자와 소년들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당나귀를 수십 마리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을 걸친 것으로 보아 먹고 살기도 빠듯한 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온 것이 분명했다. 분명 인근 지역은 전부 겨울만 이어지는 바람에 추위와 식량난에 고통 받고 있는데 대체 이들은 어떻게 배고픔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 호기심을 느낀 오스카의 물음에 남자는 자신들이 남쪽에서 왔으며,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그 이상은 말하길 꺼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집 옆에서 하룻밤 야영할 수 있도록 땀감을 좀 나눠달라는 남자의 요청에 오스카는 그러기로 하고, 집에 들어와 낯선 무리가 아침에 다 떠날 때까지 누구도 집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러나 아침 일찍 잠에서 깬 밀라는 꿈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든 소년들과 남자가 모두 사라졌지만 오스카도 함께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화들짝 놀란다. 오스카는 자진해서 함께 떠난 것일까? 남자의 뒤를 따르던 어린 소년들처럼 오스카도 그의 부하가 된 걸까? 아니면 웬지 섬뜩한 그 남자의 손에 붙들려 억지로 끌려갔을까?

밀라는 어제 밤에 본 남자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 속 ‘곰’이라 불리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가 오스카를 데려갔음을 확신한다. 잔인하기로 이름난 ‘곰’의 손아귀에서 반드시 오스카를 구해내겠다는 일념으로 밀라와 사나, 막내 피파는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북쪽 산을 향해 떠난다. 어쩌면 오빠와 함께 영원히 사라진 봄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밀라의 신비한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Kiran Millwood Hargrave)는 캠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시인,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데뷔 소설 『The Girl of Ink & Stars』는 영국에서만 13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ALIENS INVADED MY TALENT SHOW

가제 : 마술 쇼에 온 외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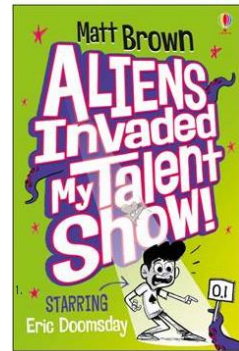
저자 : Matt Brown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8년 6월 28일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아주 커다란 반전이 기다리는 장기자랑 이야기. 작가 특유의 유머와 상상을 뛰어 넘는 장난이 가득하다” - 어스본 출판사 소설 편집담당, 베키 워커(Becky Walker)**

마술에 푹 빠진 열살 소년 에릭 돔스데이에게 지구의 운명이 맡겨졌다! 우주선을 타고 수많은 행성을 하나씩 찾아 다니며 필요 없다 싶으면 다 증발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외계인들이 다음 목적지를 지구로 정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 시뻘건 눈에 보기 흉한 몸을 가진 이 외계인들은 도착하는 행성마다 그곳에 사는 생명체처럼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에릭을 비롯한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중 누구도 이들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아주 무섭고 중요한 장학사들이라고 생각한 교장선생님은 학교 점검에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애를 쓴다. 게다가 즐겁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가 장학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교내 장기자랑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다. 문제는 그 장기자랑에 에릭의 마술 쇼도 포함되어 있고, 장학사로 둔갑한 외계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이 행사를 평가한 뒤 지구를 없애버릴지 그냥 돌지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에릭이 과연 실수 없이 마술 쇼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지만 희망을 갖기에는 에릭이 그 동안 마술 때문에 저지른 사고가 너무나 많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는 같은 학년 전체에서 인기 순위가 10권 안에는 충분히 들 만한 동급생, 해티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졌다. 사실 에릭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서른 명 남짓한 다른 친구들에게 파티 초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딱 한 명 예외라면 에릭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 비니의 생일인데, 비니 역시 에릭 외에는 아무도 생일에 초대하거나 어울려 놀려고 하지 않아서 에릭과 비니의 생일날은 늘 가족들과 두 사람이 전부였다. 그런데 올해는 어찌된 영문인지, 베틀이 에릭과 비니를 자신의 생일에 초대해 준 것이다! 에릭은 태어나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우편을 받아본 것만으로도 기절할 만큼 기쁘는데 비니 외에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뭘 뜻이 기뻐한다. 그에 못지 않게 들뜬 비니와 함께 해티의 집을 찾았을 때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다.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해티의 엄마가 아이 몰래 같은 반 친구들 전체를 초청한 것이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에릭과 비니를 발견하고 싫은 내색을 온 몸으로 뽐어대던 해티의 생일 파티는 이 불청객들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해티의 부모님이 초청한 마술사가 갑자기 올 수 없다는 연락을 해오고 너무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린 해티에게 비니가 뜬

금없는 제안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에릭이 마술사 못지 않게 마술을 잘 한다는 말을 해버린 것이다. 파티에 온 아이들이 모두 주시하는 가운데, 에릭은 가장 기초적인 속임수인 ‘남의 귀에서 동전 꺼내기’ 마술을 시작한다. 그런데 때마침 부엌에서 직접 만든 거대한 케이크를 자랑스럽게 들고 오던 해티의 엄마와 제대로 부딪히고, 케이크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떨어져 온 거실은 아수라장이 된다.

에릭은 머릿속에 거의 마술 생각밖에 없을 정도로 속임수를 열심히 연습하지만 막상 실전에 서면 사고를 치기 일쑤다. 그런데 엄한 얼굴로 쳐다볼 장학사들 앞에서 열리는 장기자랑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만한 에릭에게는 이번 ‘공연’이 왠지 잘 풀릴 것 같다고 전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은색 스팅글 장식이 잔뜩 들어간 바지를 입고, 역시나 번쩍이는 녹색 장식이 가득 달리고 어깨가 흰히 드러나는 확 튀는 상의에 ‘멋진 녀석’이라고 적힌 야구모자를 입고 무대에 오를 것이다. 두 번째, 이번 마술을 지켜볼 관중은 전교생과 선생님들, 장학사가 다가 아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 최소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에릭의 기막힌 마술 솜씨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장기자랑을 준비하던 에릭은 장학사인척 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저 멀리 우주 다른 행성에서 음흉한 계락을 품고 찾아온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티의 생일파티를 다 망쳐놓은 바로 그날 밤, 한밤 중에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뭔가 시뻘겋고 큰 두 눈과 딱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장학사들이 바로 그런 눈으로 바뀌는 것을 본 것이다! 에릭은 이들이 지구를 증발시켜버릴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작했으며 하필 미국, 하필 에릭과 친구들이 사는 동네가 평가할 곳으로 꼭 집혔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번 장기자랑을 무사히 마치고 지구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생명체인지 증명해 보여야 이들의 무지막지한 지구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마술이 잘못 걸리는 바람에 애완 앵무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계속 말하도록 하고, 엘시 이모의 애완견이 새하얀 카펫에 먹은 걸 다 토해내도록 만드는 등 지금까지 에릭의 마술 전력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과연 이 중차대한 장기자랑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에릭 자신은 물론, 지구 전체를 구하려면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에릭은 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 비니와 비니가 키우는 햄스터, 그리고 에릭이 가장 아끼는 ‘마술 속임수 상자’와 함께 결전의 날을 준비한다.

마술과 외계인, 장기자랑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를 하나로 모아 현실에서 특 튀어 나온 것 같은 열살 짜리 아이들의 대담한 도전을 유쾌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맷 브라운(Matt Brown)은 라디오 프로듀서, DJ로 활동해 왔다. 어린이 채널에서 <The Bigger Breakfast>, <Love Island Aftersun> 등의 TV 프로그램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 저서로는 아동 시리즈 『Compton Valance』가 있다.